



여성의 사회진출이 단순히 생계의 문제를 벗어나, 자아실현과 여성의 지위 상승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현실에서, 전문직을 비롯한 여성의 취업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취업한 여성들의 양육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는데, 2005년도 10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자녀 양육실태를 조사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일제 및 시간제 취업모의 경우, 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40.7%로 탁아모 양육 3.0%와 종일반 보육시설 위탁 17.8%(통계청, 200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에서 친인척을 양육대리자로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보고와(서병선, 1995) 일관되게, 중산층 취업모 대상의 연구에서, 아동의 조모나 친인척을 대리 양육자로 삼은 비율은 67.5%(강희경, 조복희, 1999), 55.7%(정문숙, 199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중산층 맞벌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조부모는 취업모의 대리 양육을 담당하는 일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 양육은 양육자에게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모의 심리적 고통이나 우울을 증가시키는 등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Creasy, & Reese, 1996; Crnic, Greenberg, 1990, Lemper, Clark-Lempers, Simonsm, 1989; Rodgers-Farmer, 1998). 이런 결과는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는 조부모의 재양육 행동(re-parenting)이 생애 과업에 맞지 않는 늦은 시기(off-time)에 일어나고, 양육 역할과 조부모 역할 간 역할 모호성으로 인해, 양육 조부모들이 우울, 불안, 삶의 질 저하 등 정신건강상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다(Landry-Meyer & Newman, 2004).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9.5%(OECD health data, 2006)를 차지하는 고령화시대에, 여성의 취업률 증대에 따른 노년층의 양육 증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양육 조부모 특히 양육의 주책임을 맡고 있는 양육 조모의 정신 건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양육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외국 연구의 상당수는 손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거나 부모 없이 양육을 전담하는 일차 양육자들에게 대한 것이다. 이 경우, 대체로 이들이 처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곤란이 양육 스트레스와 맞물려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nkler, Fuller-Thomson, Miller, Driver, 1997; Kelley, 1993; Strawbridge, Wallhage, Shema, & Kaplan 1997). 예를 들어, 양육 조부모들은(25.1%) 일반 노인(14.5%)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임상적 수준의 우울감을 보고하였고(Minkler et al., 1997), 일차 양육 조부모들은 자식으로서(filial) 양육자나 배우자(spousal) 양육자보다 정신건강이 나빴다. 더욱이 20년 후의 건강은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나빴다(Strawbridge et al., 199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국내연구도 대부분이 조손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에서, 자녀의 이혼이나 사별 등을 이유로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손가족에서 손자녀 양육은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의 부정적인 변화를 유발하고(옥경희, 2005), 이들 조부모의 상당수가 중등도의 우울을 보고하였으며(최혜경, 2006),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홍선희, 2004; 김미혜, 김혜선, 2004; 배진희, 2007).

한편, 저소득 계층에 한정되지 않은 양육 조부모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일관적이다. 부정적 결과를 보고한 연구는 양육 조모들이 사

회적 고립, 양육에 대한 부담, 건강문제와 성인자녀와의 갈등이 많으며(오진아, 2006), 비양육 조부모에 비해 일상적인 활동이 제한되고 건강 관련 만족감도 낮다고 보고한다(Minkler & Fuller-Thomson, 1999). 반면, 긍정적인 보고도 있는데,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노년기의 양육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제공하고 동료의식과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질 수 있는 상실감을 채워 주고(Burton, 1992),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한다(Sands, Goldberg- Glen, Thornton, 2005). 또한, 양육 조부모들은 미래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속성, 정서적인 충만감,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역할, 손자녀가 다양하게 성취하는 것을 자아(self)의 확장으로 여기는 것, 경제적으로나 삶의 경험을 통해 손자녀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 등에 의미를 두고 자기 역할수행을 편안하고 즐거운 것으로 지각하기도 한다(Neugarten & Weinstein, 1964).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모들은 자발적인 동기가 높아, 양육 역할에 대한 수행 및 만족도가 큰 것으로 보고된다(서병선, 1995). 또, 일본에 비해 조모의 역할이 많고, 그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영향도 커서, 조모역할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조병은, 이미숙, 강혜란, 矢富直美, 前原武子, 2002).

최근 연구들은 양육으로 인한 조모의 정신건강 그 자체보다는 그 둘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에 보다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런 변인들로 사회적 지지(권인수, 2000), 대처(Lumpkin, 2008; Musil, 1998; Musil & Ahmad, 2002; Leder, Grinstead, & Torres, 2007; Waldrop & Weber, 2001), 양육에 대한 경험 유무, 연령(홍선희, 2005)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양육 개입 수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살펴

본 연구는 이 변인들에 따라 조부모의 정신건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조부모가 양육을 전담하는 일차 양육집단과 조부모가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거나 다세대가 동거함으로써 양육을 돕는 부분/지원 양육 집단,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는 비양육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일차 양육 집단과 부분/지원 양육 집단은 비양육집단에 비해 스트레스와 건강문제를 더 많이 보고하였고, 부분/지원 양육 집단은 비양육집단에 비해 더 우울하였다. 반면, 비양육자들은 스트레스가 가장 적었지만, 덜 적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처를 사용하였다(Musil & Ahmad, 2002). 조부모가 양육을 전담하는 일차 양육 집단과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지원을 받는 공동 양육 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일차 양육 집단의 경우, 공동 양육집단보다 유의하게 우울감이 높고 생활만족도가 낮았다(배진희, 2007).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집단을 분류했을 때, 취업모 가족의 조모는 비취업모 가족의 조모에 비해 손자녀 지지 및 대리모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였다(이미숙, 조병은, 강혜란, 2004). 그러나, 양육의 개입수준에 따른 양육 형태별 연구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해 집단을 분류했고, 그 수가 적으며(Fuller-Thomson & Minkler, 2001), 분류가 대상자의 보고에 의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시간과 같은 객관적인 변인을 이용해 양육에 대한 개입수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로 양육 형태별 정신건강을 비교할 주관적 변인으로 개인의 통제감(locus of control)이 있다. 통제소재란 자신의 행동이 자기 행동의 결과를 얼마나 결정할 수 있느냐의 신념의 정도으로써(Rotter, 1966) 노인의 통제 소재가

안녕감(well-being; Krause, 1986; 1987)과 우울(Chou & Chi, 2001)을 매개함을 밝히는 등 노년 연구에서 개인의 통제감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다. 연구 결과는 신체적 활동, 친구, 가족의 사람들과 어울림(Rowe & Kahn, 1998)에서 개인의 통제감이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삶에서 의미를 끌어내게 만들어 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양육선택의 통제감이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이 있지만 그 수가 극히 적고,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선택의 하나로써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forced choice) 손자녀의 양육을 경험하는 노인들에 비해 성공적으로 노화하며 안녕감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Minkler & Roe, 1993). 또한, 일차 양육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양육 역할을 떠맡은 이들이므로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역할 변화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도 있다(Fitzgerald, 2001). 반면, 손자녀와 동거하면서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녀 양육 선택에 따른 안녕감을 조사해 보았을 때, 선택의 여부가 안녕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Sands et al, 2005). 이런 연구 결과의 불일치는 조모의 양육 선택과 관련된 통제감 여부에 따라 정신건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대리양육 역할을 담당하는 중산층 조모들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험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측면을 비양육 조모와 비교함으로써, 양육 조모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경우, 주로 조손가정이나 저소득계층의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조

모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의 결과를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일반 모집단에 일반화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스트레스(stressor)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적 상태를 통제하고자 탐색집단을 중산층으로 제한하였고, 양육형태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정신건강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 관련변인과 정신건강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탐색하고, 낮시간 양육을 담당하는 양육 조모집단의 정신 건강 및 양육 스트레스를 비양육 조모집단과 비교한다. 둘째로,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인 변인인 양육시간에 따라 양육조모 집단을 광범위(extensive) 양육 집단과 중간범위(intermediate) 양육집단으로 분류하여, 양육시간의 수준에 따라 양육집단의 정신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한다. 세 번째로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인 변인으로써 양육 선택권에 따라, 양육 선택이 자유로운 집단과 양육 선택이 강제적인 집단으로 분류하여, 선택권 유무에 따라 양육 집단의 정신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2008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4~6세 유치원 아동 282명의 조모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산층 조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통계청(2006)과 연하청(1990)의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2~2.5배 이상의 수입(연소득 3000~4000만원)을 갖는 집단을 중산층으로 규정하

고, 가계의 총소득이 2999만 원 이하인 48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3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모의 연령은 47~81세로 평균 연령은 62.09세(중앙치 61세)였다. 65.2%가 기혼상태였으며, 조모 집단의 84%는 자신의 건강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학력 수준에서 초졸 이하 36.9%, 중졸 28.4%, 고졸 31.9%, 대졸 2.8%였다.

연구도구

**부모 스트레스 척도 축약형(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K-PSI-SF Abidin, 1995;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2008)**

Abidin(1995)이 개발한 부모스트레스 척도 축약형(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정경미 등(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스트레스 척도 축약형(K-PSI-SF)을 사용하였다. K-PSI-SF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등의 하위척도로 분류된다. 점수체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36점에서 1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자의 높은 스트레스를 반영한다. 정경미 등(2008)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76에서 .91 사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80에서 .89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Diener, Emmons, Larsen, 그리고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최진희(2003)가 번역한 삶의 만족

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통해 조모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나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와 같은 총 5 문항을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삶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한국어로 번안된 삶의 만족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5에서 .86 사이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완석, 김영진, 1997; 이은경, 2007)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ve Inventory; BDI; Beck, 1967)**

Beck(1967)이 개발하고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한국어로 번안한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0~3점까지 4점 형식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심한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영호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로서의 의미 척도 축약형(Grandparenthood Meaning, GM Kivnick, 1983)**

Kivnick(1983)이 개발하고 Hayslip, Henderson, 그리고 Shore(2003)가 31개의 문항으로 축약한 조부모로서의 의미 척도 축약형(Grandparenthood Meaning-Short Form; GM-SF)을 통해 조모들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조부모로서의 의미를 측정하였다. 축약형 GM의 한국판 척도는 일차적으로 한국어 번역을 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심리학과 대학원생 2인의 역번역을 통해 재구성한 뒤, 심리학과 교수인 전문가 2인으로부터 번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받았다. 마지막으로 국문학 전공 박사에게 한국어 표현의 정확성을 검증받았다. GM은 구심성, 존경 받는 연장자, 연속성, 과거의 재 경험, 허용성이라는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점(아주 강한 부정)부터 7점(아주 강한 긍정)까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31점에서 217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조부모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Hayslip 등(2003)에 의하면 GM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73에서 .79 사이에 속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8에서 .89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결 과

####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15.0 for windows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먼저, 양육 관련변인과 정신 건강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양육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정신건강 차이를 MANOVA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시간에 따라 양육집단을 분류하여 집단 간 정신건강 차이를 MANOVA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양육의 선택권유무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집단 간 정신건강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 양육관련변인과 정신건강간의 상관

조모의 연령, 손자녀를 돌봐온 햇수, 자신의 건강 상태, 주당 양육시간과 조부모의 정신건강 지표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표 1). 그 결과, 연령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r=.15, p<.05$ ) 자신의 건강 상태와는 부적 상관을( $r=-.252, p<.001$ )을 보였다. 또, 건강상태는 삶

표 1. 양육관련변인과 정신건강간의 상관

변인	Age	Health	Time	Year	SWL	DEP	PSI	GM
Age								
Health	-2.52***							
Time	-.04	-.04						
Year	.16*	-.00	.21**					
SWL	-.08	.27***	.17*	.01				
DEP	.15*	-.31***	-.14*	.06	-.51***			
PSI	.07	-.10	-.05	.05	-.29***	.36***		
GM	-.00	.11	.21**	.08	.30***	-.19**	-.24***	

\* $p<.05$ , \*\* $p<.01$  \*\*\* $p<.001$  Age: 조모 연령 Health: 건강상태 Time: 주당양육시간 Year: 양육햇수 SWL: 삶의 만족도 DEP: 우울 PSI: 양육스트레스 GM: 조부모로서의 의미

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 $r=.27, p<.001$ )을 보였다. 주당 양육시간은 조부모로서의 의미( $r=.21, p<.01$ ), 삶의 만족도( $r=.17, p<.05$ )와는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우울과는 부적 상관( $r=-.14, p<.05$ )을 보였고, 양육 스트레스와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지표간의 상관을 보면, 삶의 만족도는 조부모로서의 의미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30, p<.001$ ), 우울( $r=-.51, p<.001$ ), 양육스트레스( $r=-.29, p<.001$ )와는 유의하게 부적 상관을 보였다. 조부모로서의 의미도 우울( $r=-.19, p<.01$ ), 양육스트레스( $r=-.24, p<.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 유무에 따른 조모의 정신건강 및 양육 스트레스**

**인구 통계학 및 양육관련변인**

자기 보고에 의해 낮시간 주양육자가 조모인 집단을 양육 집단으로(134명), 낮시간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아동의 조모를 비양육 집단

으로(100명) 구분했을 때 양육하는 손자녀 성별, 연령, 조모 집단 간 혼인관계, 학력, 연령에서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양육 집단의 경제적 수준이 비양육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표 2).

**정신 건강 변인**

양육집단과 비양육 집단이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므로, 경제수준을 통제하고 MANOVA를 실시하였다. 양육 집단과 비양육 집단 간의 정신건강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표 3)가 제시되었다. 양육 집단은 비양육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하고( $F= 8.91, p<.01$ )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F= 4.32, p<.05$ ) 양육스트레스도 더 높다고( $F=13.85, p<.001$ ) 보고되었다.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세 영역인 부모의 고통( $F=13.86, p<.001$ ),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F=4.92, p<.05$ ), 까다로운 자녀 영역( $F=4.71, p<.05$ )에서 두 양육집단은 비양육 집단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한

표 2. 양육/비양육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

변인	비양육집단 (n=100)	양육집단 (n=134)	변인	비양육집단 (n=100)	양육집단 (n=134)		
연령(M/SD)	63.02(5.50)	61.75(5.45)	경제적 수준 (명/%)	3000- 4999만원	66(66)	67(50.0)	
주당양육시간 (M/SD)	9.18(12.85)	38.96(35.49)		5000- 6999만원	23(23)	47(35.1)	
가족수(M/SD)	3.29(1.79)	3.97(1.77)		7000만원 이상	11(11)	20(14.9)	
최종 학력 (명/%)	초졸이하	38(38)	41(30.6)	혼인 형태 (명/%)	기혼	71(71)	89(66.4)
	중졸	31(31)	38(28.4)		사별	24(24)	44(32.8)
	고졸	27(27)	54(40.3)		이혼	5(5)	1(0.7)
	대졸	4(4)	1(0.7)				

표 3. 양육/비양육집단간의 정신건강 변인

변인	비양육 (n=100)	양육집단 (n=134)	F
삶의 만족도	20.40(5.87)	18.98(5.55)	4.32*
우울	7.65(7.18)	10.49(8.12)	8.91**
양육스트레스	72.87(15.51)	83.13(25.02)	13.85***
부모의 고통	24.37(6.65)	30.34(15.19)	13.86***
역기능적 상호작용	23.51(5.37)	26.04(10.76)	4.92*
까다로운 자녀	24.99(6.37)	26.75(6.84)	4.71*
조부모로서의 의미	155.68(23.01)	154.42(22.70)	0.28

\* $p < .05$ , \*\* $p < .01$  \*\*\* $p < .001$

편, 조부모로서의 의미 차원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 시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Fuller-Thomson & Minkler(2001)에 제시된 지원적 형태의 조모 양육 분류 기준에 따라, 주당 30시간 이상 양육자를 광범위(extensive)양육 집단, 주당 10~29시간 양육하는 집단을 중간 범위 (intermediate)양육 집단으로 나누어, 비양육 집단과 비교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양육집단은 광범위양육 집단 67명과 중간 범위 양육 집단 54명으로 분류되었고, 주당 10시간 미만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낮 시간 주양육자로 표기한 조모 23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양육관련 변인

양육시간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 양육 관련 변인 및 정신건강 변인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평균 주당 양육시간은 광범위 양육 집단(67명)은 61.33시간, 중간범위양육 집단(67명)은 18.91

시간, 비양육 집단(100명) 9.18시간으로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p < .001$ ), 건강수준, 연령, 학력 수준에서 집단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 정신 건강 변인

정신건강 지표 중, 삶의 만족도 차원에서는 세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간범위 양육 집단은 비양육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우울하다고 보고하였다( $F=4.57, p < .05$ ). 반면, 광범위 양육집단과 비양육 집단 간에는 우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양육 집단은 비양육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F=6.85, < .01$ ). 특히, 부모 역할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인 부모의 고통 하위척도에서 중간범위양육집단과 광범위 양육 집단은 비양육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F=7.47, p < .01$ ). 한편, 조부모로서의 의미 차원에서는 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양육 시간이 적은 중간범위 양육 집단에서 우울감이 유

표 4. 양육시간에 따른 집단간 양육관련변인 및 정신건강 변인

변인		비양육 (n=100)	중간범위 양육집단(n=54)	광범위 양육집단(n=67)	F	Tukey
인구통계적 변인	연령(M/SD)	63.02(5.50)	61.85(5.97)	61.79(5.28)		
	양육시간(M/SD)	9.18(12.85)	18.91(5.17)	61.33(38.44)		
정신건강 변인	삶의 만족도	20.40(5.87)	18.57(5.61)	19.28(5.62)	1.94	
	우울	7.65(7.18)	11.48(7.78)	9.36(7.90)	4.57*	2>1
	양육스트레스	72.87(15.51)	85.83(29.07)	81.28(23.47)	6.85**	2,3>1
	부모의 고통	24.37(6.65)	32.15(21.89)	29.37(8.46)	7.47**	2,3>1
	역기능적 상호작용	23.51(5.37)	26.35(6.59)	25.78(13.95)	2.17	
	까다로운자녀	24.99(6.37)	27.33(7.72)	26.13(6.34)	2.19	
	조부모로서의 의미	155.68(23.01)	151.41(25.16)	157.39(20.19)	1.08	

\* $p < .05$ , \*\* $p < .01$  \*\*\* $p < .001$

의하게 가장 높았고, 조부모로서의 의미 차원이나 삶의 만족도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아,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에서 취약한 집단임을 시사하였다.

**양육 선택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개인의 선택권에 초점을 두어, 양육 시간은 비슷하더라도 양육의 선택이 자유로운 집단과 강제적인 양육 상황에 있는 집단 간의 정신건강의 차이를 탐색해 보았다. 양육자의 자격을 주당 15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로 규정한 Bower & Myers(1999)의 기준을 기초로 양육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하임에도 본인을 낮 시간 양육자로 분류한 집단을 강제 선택양육 집단으로, 비양육 집단 중 상황에 따라 손자녀 돌보는 시간을 갖는 집단을 자율 선택 양

육집단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비양육 집단 중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23명과 양육시간을 표기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73명의 자료를 자율 선택 양육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정신건강을 비교하였다.

**양육관련변인**

주당 양육 시간은 강제선택 양육집단(31명)의 경우, 10.42시간, 자율 선택양육집단(73명) 9.18시간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령, 최종학력, 건강상태, 가족 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정신 건강 변인**

자율 선택 양육집단은 강제 선택 양육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t=2.45, p<.05$ ) 반면, 강제 선택 양육 집단은 자율 선택 양육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우울하고( $t=-5.07, p<.001$ )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

표 5. 양육 선택에 따른 집단간 양육관련변인 및 정신건강 변인

변인		자율선택 양육집단 (n=73)	강제선택 양육집단 (n=31)	t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령(M/SD)	63.02(5.50)	60.77(4.45)	
	주당양육시간(M/SD)	9.18(12.85)	10.42(3.59)	
정신건강 변인	삶의 만족도	21.01(5.61)	18.13(5.25)	2.45*
	우울	6.66(6.57)	14.65(8.94)	-5.07***
	양육스트레스	71.49(15.65)	95.06(30.38)	-5.22***
	부모의 고통	24.15(6.50)	37.26(2)6.70)	-3.95***
	역기능적 상호작용	23.08(5.36)	27.71(5.93)	-3.90***
	까다로운자녀	24.26(6.28)	30.10(6.66)	-4.26***
	조부모로서의 의미	155.04(22.88)	142.10(23.77)	2.61**

\* $p < .05$ , \*\* $p < .01$  \*\*\* $p < .001$

이 경험하는 것으로( $t = -5.22, p < .001$ ) 보고하였다. 집단차는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세 하위척도 모두에서 발견되었는데, 모두 강제 선택 양육집단이 자율 선택 양육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부모의 고통( $t = -3.95, p < .001$ ),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t = -3.90, p < .001$ ), 까다로운 자녀 영역( $t = -4.26, p < .001$ ). 또한, 강제 선택 양육집단은 자율선택 양육 집단에 비해, 조부모로서의 의미를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였다( $t = 2.61, p < .01$ ).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낮 시간 동안 만 4~6세 손자녀를 돌보는 중산층 조모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비양육 조모들과 비교 조사하였고, 양육 시간과 양육의 선택권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양육 형태별 분류에 따른 집단차이를 탐색하였다. 경제적인 이유나 전적인 양육 책임으로 인한 부담을 배제하기 위해 조부모 양육의 맥락을 중산층의 지원 양육 형태로 제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육을 담당하는 조모들이 비양육 조모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 손자녀 양육이 조모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긍정적 자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던 ‘조부모로서의 의미’ 차원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의 양육 집단이 비양육 집단에 비해 우울하고 활동상의 제약을 많이 받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한다(Minkler & Fuller-Thomson, 1999; Musil & Ahmad, 2002).

어느 정도의 양육개입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양육 집단을

형태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양육 형태를 구분하는 객관적 변인으로서 양육의 물리적 개입의 양인 양육 시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이를 비양육 집단과 비교한 결과, 조부모로서의 의미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간범위양육 집단이 비양육 집단에 비해 뚜렷이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 양육 집단과 비양육 집단 간 우울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조모 양육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육시간을 세분화하여 관찰한 연구가 부재하므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중간범위양육 집단이 시간적 제약이 많은 광범위양육집단에 비해 오히려 정신건강상 취약한 집단임을 보여준다. 이는 양육시간이 많을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는 어긋나지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건강악화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며 그보다는 손자녀 양육의 영향은 돌봄의 맥락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최근 종단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Hughes, Waite, Lapierre, & Luo, 2007). 이 두 연구 결과는 물리적인 개입의 양인 양육시간보다는 인지적 요소와 같은 제 3의 변인 혹은 매개 변인이 양육시간과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한 가능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시간은 같지만 양육 선택권에 의한 통제소재가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해 보았다. 시간적으로는 양육집단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15시간 이하 강제선택양육집단의 경우, 거의 임상집단에 준하는 우울감과 양육 스트레스를 보고하여 정신건강상 가장 취약함을 드러내었다. 이 연구 결과는 앞서 추측한 바대로 양육과

관련된 물리적인 시간 그 자체 보다는 그 시간에 대한 통제감의 여부가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확인시켜 준다. 추후 연구에선 통제감을 매개변인화하여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 결과는 역할 동일시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Szinovacz(1999)는 부모 없는 손자녀를 돌볼 경우 시간에 따라 우울이 증가하지는 않으나, 같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시간에 따라 우울이 증가한 결과를 조부모와 모의 역할 중첩으로 인한 문제로 설명한 바 있다. Jendrek(1994) 와 Kelley(1993)도 자녀에 대해 일차적인 양육 책임을 지는 주양육 조모들의 스트레스는 주로 양육과 관련되는 반면, 부분적/지원적인 양육자의 경우에는 양육보다는 그들의 역할에 관한 양가감정(ambivalence)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15시간이하 양육 집단은 역할이론에서 말하는 느긋한 조부모로서 보내고픈 바램과 고된 부모역할을 해야 하는 것 사이의 상충되는 긴장이(Stroke & Greenstone, 1981) 가장 큰 집단이다. 따라서, 이 집단은 광범위 양육 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역할 중첩으로 인해 역할 동일시가 불충분하고 자기 역할과 관련한 양가감정이 많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추측된다. 중간범위양육집단이 정신건강상 취약하다는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추후 연구를 통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15시간 이하 강제 선택양육 집단은 양육 시간에 비해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각이 높은 집단으로 이들의 일부는 현실적으로 손자녀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나 조모역할 외의 자원봉사, 여가선용 등을 개인적 측면에 가치를 두어 양육 시간을

최소화된 양육 회피 집단일 소지가 있겠다. 15 시간 이하 양육 집단의 연령이 가장 낮고 조부모로서의 의미 점수도 가장 낮은 점은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

반대로, 광범위 양육 집단이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에서 비양육 집단과 유사한 정신건강을 보인 이유로, 광범위 양육 집단의 자생적인 능력을 들 수 있겠다. 자신이 부모 역할을 하게 한다고 지각하는 조부모는 대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특히 문제 초점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는(Lumpkin, 2008) 부모 역할에 대한 동일시가 강할수록 문제해결 지향적인 대처를 보임을 시사한다. 이와 비슷하게, Musil과 Ahmad (2002)의 연구에서, 비양육 집단은 회피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양육집단은 비양육 집단에 비해 적극적인 양육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를 적용해 본다면, 광범위 양육 집단은 본인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다른 전략들을 개발함으로써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처해 왔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양육스트레스의 탐색대상을 기존의 저소득층에서부터 중산층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양육조부모에 대한 국내 연구가 조손가정과 경제적 빈곤대상에 한정되어 빈곤 및 양육적 책임과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탐색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대상을 중산층 집단에 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양육 조모의 주를 이루는 중산층 양육조모 집단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둘째로, 중산층 양육 조모의 정신건강을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가 통제집단 없이 조모양육집단에 한정되어 양육하지 않는 조모들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을 준거로 양육형태를 세분화하여 양육조모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육의 물리적 양이 정신건강과 직선적인(linear) 관계에 있지 않으며, 양육의 물리적인 양보다는 통제소재의 결여 등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정보들은 임상 현장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노년기 여성에 대한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대상 집단이 만 4~6세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집단에 한정되어, 결과를 영유아기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에게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표집대상을 조모에만 한정하여, 은퇴 후 손자녀 양육을 함께 담당하는 조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공동 양육을 담당하는 노년기의 부부는 역할의 책임소재에 따라 양육이 주는 정신건강의 의미를 조명할 수 있는 집단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같은 아동을 양육하는 모와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재하는 변인의 차이를 조사한다면, 모와 조모의 정신건강에 다르게 작용하는 양육스트레스의 기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을 탐색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희경, 조복희 (1999). 3 세 이하 자녀를 둔

-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20, 41-55.
- 권인수 (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 212-223.
- 김미영 (2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취업모를 자녀로 둔 조모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 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회, 24, 153-170.
-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18, 85-117.
- 김혜선 (2005). 농촌과 도시 지역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8, 341-378.
- 배진희 (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29, 67-94.
- 서병선 (1995). 조모의 손자녀 대리 양육 수행과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육경희 (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 103-114.
- 오진아 (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 368-376.
- 연하청 (1990). 199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추진 방향. 사회보장 연구, 6, 185-202.
- 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취업모가족과 비취업모가족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2, 69-84.
- 이영호, 송중용(1991). BDI, SDS, MMPI-D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형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 축약형 (Korean-Parenting Stress Index: K-PSI-SF)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여성, 13, 363-377
- 정문숙 (1996). 취업모의 자녀양육실태, 대리양육자에 대한 태도 및 스트레스 경험정도. 경북의대지, 37, 517-533.
- 조병은, 이미숙, 강란혜, 矢富直美, 前原武子 (2002). 한국과 일본 취업모 가정의 조모 역할과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1, 213-229.
- 최진희(2003). 사회비교의 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 207-222.
- 통계청 (2005). 사회 통계 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 통계청 (2006). 가계조사 연보 2006, 통계청.
- 홍선희 (2004).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OECD health data (2006).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통계청.
- Abidin, R. R. (1983). *Parenting Stress Index manual*.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 Press.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3rd ed.)*.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owers, B. F. & Myers, B. J. (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 303-311.
- Burton, L. M. (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The Gerontologist, 32*(6), 744-751.
- Chou KL, & Chi I. (2001). Financial strain and depressive symptoms in Hong Kong elderly Chinese: The moderating or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ntrol. *Aging Mental Health, 5*(1), 23-30.
- Creasey, G., & Reese, M. (1996).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 of parenting hassels: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symptoms, nonparenting hassel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93-406.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Fitzgerald, M. L. (2001). Grandparent Parents: Intergenerational Surrogate Parenting. *Journal of Holistic Nursing, 19*, 297-307.
- Fuller-Thomson, E., & Minkler, M. (2001). American Grandparents Providing Extensive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Prevalence and Profile. *The Gerontologist, 41*, 201-209.
- Hughes, M. L., Waite, L. J., LaPierre, T. A., & Ye Luo. (2007). All in the Family: The Impact of Caring for Grandchildren on Grandparents' Health.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2B*(2), S108-S119.
- Jendrek, M. P. (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09-621.
- Jendrek, M. P.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 *The Gerontologist, 34*(2), 206-216.
- Kelley, S. J. (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4), 331-337.
- Kivnick, H. Q. (1982). *The meaning of grandparenthood*. Ann Arbor, MI: UMI Research Press.
- Kivnick, H. Q. (1983). Dimension of grandparenthood meaning: deductive 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der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5), 1056-1068.
- Krause, N. (1986). Stress and coping: reconceptualizing the role of locus of control beliefs. *Journal of Gerontology, 41*(5), 617-622.
- Krause, N. (1987). Chronic strain, locus of control, and distress in older adults. *Psychological Aging, 87*(2), 375-382.
- Landry-Meyer, L., & Newman, B. M. (2004). An

- Exploration of the Grandparent Caregiver Role. *Journal of Family Issues*, 25, 1005-1025.
- Leder, S., Grinstead, L. N., & Torres, E. (2007).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Stressors, social support, and health outcomes. *Journal of Family Nursing*, 13, 333-352.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Lumpkin, J. R. (2008). Grandparents in a parental or near-parental role: Source of stress and coping mechanism. *Journal of Family Issues*, 29, 357-372.
- Minkler, M., Fuller-Thomson, E., & Driver, D. (1997). Depression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Result of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Archives of Family Medicine*, 6, 445-452.
- Minkler & Fuller- Thomson. (1999). The Health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Results of a Natio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 1384-1389.
- Minkler, M., Roe, K. M., & Price, M. (1992). Th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crack cocaine epidemic. *The Gerontologist*, 32(6), 752-761.
- Minkler, M., & Roe, K. M. (1993). *Grandmothers as caregivers; Rasing children of the crack cocaine epidemic*.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usil, C. M. (1998). Health,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grandmother caregiver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 441-445.
- Musil, C. M., & Ahmad, M. (2002). Health of grandmothers: A comparison by caregiver Statu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4, 96-121.
- Neugarten, B. L., & Weinstein, K. K. (1964).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6, 199-204.
- Pruchno, R. A. (1999). Raising grandchildren: The experiences of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The Gerontologist*, 39, 209-221.
- Rodgers-Farmer, A.Y. (1999).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parenting in grandmother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1, 377-388.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tion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28.
-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 Sands, R. G., Goldberg-Glen, R., Thornton P. L.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ositive well-being of grandparent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5, 65-82.
- Shore, R. J., & Hayslip, B. (1994). *Custodial grandparenting*. New York Plenum Press.
- Strawbridge, W. J., Wallhagan, M. I., Shema, S. J., & Kaplan, G. A. (1997). New burdens or more of the same? Comparing grandparent, spouse, and adult-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7, 505-510.
- Strokes, J., & Greenstone, J. (1981). Helping Black grandparents and old adults cope with

- child rearing: A group method. *Child Welfare*, 70, 691-701.
- Szinovacz, M. E. (1998). Grandparents today: a demographic profile. *The Gerontologist*, 38, 37-52.
- Waldrop, D. P., & Weber, J. A. (2001). From grandparent to caregiver: The stress and satisfaction of raising grandchildren. *Families in Society*, 82, 461-472.

1 차원고접수 : 2008. 8. 10.  
심사통과접수 : 2008. 8. 24.  
최종원고접수 : 2008. 9. 26.

## **The Mental Health Study of Caregiving Grandmothers Comparing with Non-Caregiving Grandmothers of Middle class**

**Ji-Yeon Lee**

**Kyong-Mee Chung**

**Won-Kyong Kim**

Yonsei University

Korea Digit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bjective index of mental health of middle-class grandmother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who representatively undertake the role of surrogate mother in our society, through comparing their positive/negative variables of mental health which can be experienced by caregiving, with non-caregiving grandmothers. This study examined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grandparents meaning of middle-class caregiving-grandmothers who undertake bringing up of four-to-six-year-old grandchildren and non-caregiving-grandmothers, and thus, conducted comparative research of their mental health and parenting str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aregiving-grandmothers were distinctly depressed, had lower life satisfaction, and experienced higher level of parenting stress when compared to non-caregiving-grandmothers.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wo groups were found in grandparent meaning. When classified groups according to caregiving-time and caregiving-choice, intermediate-caregiving group who had less caregiving-time showed more depression so that revealed vulnerability of mental health when compared with the extensive-caregiving group who had more caregiving-time. In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caregiving-choice, forced-choice group showed more depression, less life-satisfaction, and higher parenting stress as compared with free-choice group. Present study discussed the effect of grandmother parenting in perspective of choice of parenting and role-identification.

*Key words* : *grandparenting, caregiving grandmother,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grandparents meaning, caregiving-time, caregiving-choice*